

2015.3.14. 주일오후예배 메시지

성령에 매인 생명 건 헌신

사도행전 20:21-24

김완식 목사님

나는 결혼을 한 것이 참 감사했다. 아이를 낳으니깐 더 감사했다.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더 감사하고 기뻐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것, 내 생애에 최고의 날이 1994년 2월 18일이었다. 잊을 수 없다. 합숙훈련을 2기로 받은 날이었다. 1기로 받은 후배가 와서 나에게 은혜받은 것을 설명해 줬다. 하나님의 은혜로 류목사님 메시지를 한 번 듣고 결단하고 합숙을 갔다. 합숙을 갔는데, 메시지를 못 들었다. 우느라고 강호인 목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나는 가장 중요한,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답만 외우고 있었구나. 이게 뭐냐. 모태신앙이었고 신학을 7년이나 공부했는데 왜 이걸 몰랐단 말인가.’ 21년 쯤 그 은혜와 충격 속에 있다. 메시지를 적지도 못하고 울기만 하다가 왔다. 한 가지가 나에게 담기게 되었다. 복음이 다였다.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이때부터 내 속에 있는 율법, 신비, 인본주의가 벗겨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부터 바로 전도 문이 열리고 영접이 되어지기 시작했다. 1년 했더니 다락방 29곳이 열리면서 복음편지, 새생명에 답이 나게 되었다. 현장복음메시지를 가지고 60주 했더니 이 말씀이 나에게 움직여서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전도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전도가 되어지기 때문이다. 전도보다 더 중요한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깨달았다는 것은 축복 중의 축복인데, 이것을 1차합숙에서 가장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도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는 훈련은 1차합숙 뿐이다. 우리 다락방이 여기까지 온 것은 1차합숙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귀중한 훈련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지역에서 시작되는데, 그것도 참사랑교회에서 시작된다. 대박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진짜 합숙을 받고 결단해 보라. 평생 헌신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축복이 일어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헌당식도 할 것 아닌가. 엔화 내려가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감사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 어떤 때는 최목사님께 전화도 한다. “형님, 엔화 내려가는 것 축하드립니다.” (웃음)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축복하실지 모른다. 엔화와 상관없이 오늘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증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바울의 고백과 같은 생명건 헌신이 여전도회에서 시작되고, 남전도회가 따라가게 되기를 바란다. 3개월 전에 언약교회에서 합숙훈련을 하게 되었다. 가서 강의를 하는데 66명이 신청했다. 한 사람도 다른 교인이 없이 전부 언약교회 성도들이었다. 첫 날 하고 둘째 날 강의를 하러 들어가는데, 전도가 되어지는 복음 하나만 설명했다. 합숙 마치고 교회 분위기가 달라져 버렸다. 오늘 이번 합숙에 1, 2, 3여전도회만 합숙 받아도 대박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도 참사랑교회에서 하지 않나. 얼마나 축복인가.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축원한다.

오늘 헌신예배라 해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 보았다. 내 말이 아니다. 성령에 매인, 그냥 헌신이 아닌 생명건 헌신이다. 이것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축원한다. 여러분, 성령에 매이는 게 많나, 세상에 매이는 게 많나.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많이 매여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

서론

- (1) 돈에 매여 있다.
- (2) 자식에게 매여 있다.

(3) 어떤 사람은 가정에 매여서 꼼짝도 못한다.

(4) 어떤 사람은 여자에게 매여 있다고 한다. 여자는 남편에게 매여 있다고 한다. 사람에게 매여 있는 게 얼마나 많나.

(5) 여기에도가, 세상 명예, 권력,

(6) 사역한다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사역이 아니다. 동기에 매여서 사역하는 게 얼마나 많나? 내가 조금만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다. 자세히 보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매인 게 너무 많다는 말이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 보일 수 없다. 하나님 앞에 헌신도 어떻게 할 수 있겠나. 헌신 안에 엄청난 축복이 따라올텐데, 이 축복과 무관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성령에 매인 생명 건 헌신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란다.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22절에,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에, “내가 달려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여전도회의 고백 되기를 바라고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 되기를 바란다. 귀한 게 뭐가 있겠나.

1. 성령의 바른 인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는가? 성령의 바른 인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

(1) 시작을 어떻게 해야 성령의 바른 인도를 받을 수 있나?

① 나는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순간부터, 성령의 역사가 이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한다. 마 16:16에 베드로가 고백한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안에 다 들어있지 않나.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고 마귀 손에서 벗어났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다. 그런데 17절을 보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은,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는 말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개입하셨다는 말이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순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이다.

② 고전12:3에, 분명히 이때 역사한다고 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 성령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이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말씀의 영이요, 은혜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우리를 돕는 보혜사의 영이시다. 보혜사가 뭐가? 조계사 형인가? (웃음) 우리를 돕는 영이시라는 말이다. 파라클레토스, 내게 붙어서 떠나지 않는다는 의미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③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과 함께(요1:12),

④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게 된다(고전3:16). 확실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다.

⑤ 성령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요14:14-16에 보면, 나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셨다고 했다. 이것만큼 완벽한 축복이 어디 있다. 내 안에 내주

하시고 역사하셔서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내 옆에 지금 붙어 계시는데, 무엇을 염려할 것이 있겠는가.

⑥ 성령의 속성은 그런데, 내주 인도 정도가 아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눅11:13, “아무리 악 할지라도 아버가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왜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빠지는가.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확인하고 움직여야 한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이것을 맛보는 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다.

⑦ 이미 그 안에서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 기본메시지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 신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 버렸다. 이때부터 예수 이름만 부르면 사단의 세력은 꿈쩍 못한다. 하늘 군대, 천군 천사를 보내사 우리 가는 길을 완벽히 인도하신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실패하나.

그래서 나는 대표기도하는 장로님에게, 신분과 권세를 빼뜨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성령은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셔서 흑암 권세가 꿈쩍 못할 뿐 아니라, 천군천사가 동원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다. 이 땅에 살지만 나의 배경은 하늘나라 시민권이다. 진짜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기 바란다. 신분은 누리고, 권세는 사용하면 된다. 성령은 이미 내주하고 계신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 축복 아닌가. 이것만큼 축복이 있는가. 이것만큼 은혜되는 것이 있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 아닌가. 그냥 복이 아니다. blessing이다. 이 단어는 blood에서 나온 것이다. 이 말은 피 나도록 노력해야 복 받는다는 말이 아니다. (웃음)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신 것을 통해 내가 받은 구원이 바로 복이다. 이 안에 있기만 하면 아무 것도 고민할 게 없고 염려할 게 없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데, 얼마나 구체적인가? 이것을 바울이 알았다. “생명조차 귀한 게 아니다. 복음 증거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성령에 매여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시작한 교회 아닌가.

(2) 이 성령이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비밀을 지금부터 누려야 한다.

① 성령이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최고의 시작으로, 예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다.

② 아무리 예배해도, 예배를 통해 복음 중심의 말씀이 없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는가. 그래서 복음 중심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성령인도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이다.

③ 그 말씀을 조금만 묵상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제목이 발견되니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하시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라.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야 율법적, 자기중심적 기도제목들이 바뀌는 것 같더라. 시간표가 되니까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다. 놀라운 것은, 진짜 기도는, 일단 내 것을 버려야 한다.

④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게 되어 있다.

⑤ 그뿐 아니다. 하나님이 미션을 허락하시는데, 이것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과 축복의 문들을 여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고 달려가기만 하면 여러분 삶에 성령의 역사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이 은혜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성령은 이미 우리 속에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성령을 통하여 예배하고 헌신까지 결단하니, 미션 붙잡

고 가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축복의 문을 여실 것이다.

(3)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조금씩 치유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현장에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고 전할 때마다, 내 심령이 내적으로 치유되는 것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① 치유의 시작은 갱신의 역사다.

② 개혁하라고 그렇게 외쳐도 안 되는데, 복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개혁되는 것이다.

③ 이때부터 내 삶이 혁신되는 것이다.

깊이 한 번 보라. 조금씩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있지 않은가? 조금씩 체질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가? 그런데 어느 시간표가 되면, 각인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령에 매여 이끌려 가되, 생명 걸 수 있는 그 축복으로 달려가는 여전도회 되기를 축원한다.

2. 전도자의 삶

자세히 한 번 보라. 이런 복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한다. 참사랑교회는 바울처럼 전도자의 삶에 결단하는, 참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전도자는 이런 삶에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한다. 내가 복음 안에 들어온 것은 축복 중의 축복인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기를 원한다면, 균형잡힌 헌신을 해야 한다.

(1) 내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바른 줄을 잡는 것이다. 외줄을 타는 사람이 균형을 놓치면 큰 일이 난다. 그래서 외줄 타는 사람은 균형을 잡기 위해서 큰 장대를 잡고 있다. 한국의 광대들은 부채를 가지고 균형을 잡는다. 인생 자체가 외줄을 타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줄을 잡지 않으면,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써도 안 된다. 복음만이 모든 것의 다다.

① 복음 외에는 내게 생명의 역사가 없다.

② 복음 외에 능력의 역사는 없다. 그래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 한 곳 있다. 풀어서 설명했다. 롬1:1-4이다.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설명했다. 복음 하나를 설명하려고 수만 마리 양을 잡아야 했다. 이것이 이렇게 설명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써 선포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복음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분만이다. 성결의 영으로 오신 그분만이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다.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능력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생명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된다면,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복음의 줄을 잡고 헌신을 시작하라.

③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답이 복음밖에 없다.

④ 복음 외에 응답받을 길이 있는가? 없다.

⑤ 복음 가진 자가 망할 수 있는가? 절대로 없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나는 류목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명쾌하게 정리하게 되었다. 이것 하나만 정리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풀려지게 되어 있다. 복음 깨닫고 나면 현상이 보인다. 사람들은 시한폭탄을 들고 다닌다. 여러분 자녀가

그것을 들고 있으면 어떡하겠는가. 뇌관을 제거해 줘야 할 것 아닌가. 결혼은 시한폭탄 두 개가 만나는 것이다. 1년 되면 새끼 시한폭탄이 나온다. 한꺼번에 두 개 나온다. 멕시코에 가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설교 중간에 갑자기 누가 일어나서 고함을 지르는 거다. 맞다고 이것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이 복음밖에 없다. 이 복음의 깃발을 최목사님이 드신 것이다. 여러분, 복음 말 안하는 교회가 더 많지 않나. 심각한 것이다. 작년 5월 23일에 NCKK(한국교회협의회)가 천주교와 회의를 해서, 교회 직제 개편을 해서 직제를 천주교와 일치시키자고 결의했다. 목사를 신부로, 총회장을 주교로 부르자고 했다.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바꾸고, 기도문도 하나로 만들자고 했다. 심각한 일 아닌가? 그런데도 영적 무지 속에 있으니 감각이 없다. 무기력, 무능력에 빠져서 영적으로 마비되었는데도 모른다. 복음만이 영적으로 마비된 나를 회복시킨다. 복음의 줄을 잡고 가는 것이 전도자의 근본 중 근본이다. 이것 놓치면 아무리 사역 잘 하려고 해도 안 된다.

(2) 이 땅을 살면서 기도의 줄을 잡고 가라. 기도만큼 쉬운 게 뭐가 있나.

- 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깊이 한 번 묵상해 보라.
- ②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움직이는데, 점심 때가 되면 확인이 된다. 응답이 확인되는 것이다.
- ③ 저녁에는 내일을 계획할 뿐 아니라,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완벽하게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 진짜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기도 안 하면 성령의 충만을 입을 수 없으므로, 강단의 메시지를 생명처럼 붙잡고 기도하게 될 것이다. 전에 나는 교인들에게, “너는 무슨 말씀을 붙잡고 나가니?” “너는 오늘 무슨 말씀을 응답받고 왔니?” 이것을 아파트 문에 붙여놓고 다녀 보라고 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할수록 응답으로 확인될 것 아닌가? 응답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확인되는데, 이것만큼 신나는 게 어디 있나?

(3) 삶에 당연한 균형이 이때 잡혀진다.

- ① 예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나? 하나님께 예배하면,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으므로,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다.
- ②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있으니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 그 일에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 중 축복임을 확신한다. 나 자신을 여기 드리는 것만큼 복이 어디 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시간표다. 헌신은 남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다. 계산하는 게 헌신이 아니다. 헌신은 계산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핑계가 너무 많다. 무엇 때문에 안 된다, 못 한다 하는데, 진짜 헌신은 핑계도 없고 계산할 필요도 없다. 뭘 낱알이 계산하고 있나. 완전히 벗어 버리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 뽀세메스로 가는 소를 보자. 진짜 헌신은, 뽀세메스로 법대를 메고 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 생명까지도 드리는 것이다. 세 가지 줄을 잡고 가면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보일 것이다.
- ③ 여기에 직업과 일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겠는가.
- ④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가지고 100%, 올-인 하는 것이 헌신이다. 계산하지 않고 드리는데 남음이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한다.

결론

(1) 나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오늘 내게 24시 성령의 충만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24시 성령충만해야 한다. 이것은 내 기도일 뿐 아니라 류목사님 기도다. 성령충

만 받아야 분별력, 판단력이 생기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분별을 못 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성령충만의 옷을 입어야 내 속에 복음에 유익하지 않은 불신앙, 염려의 옷이 벗겨지고, 계산 염려 동기 이익의 옷이 벗겨져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성령충만 안에서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다. 성령충만 안 받으면 하는 일마다 이상한 일만 하게 된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한 번 멋있게 살다 가야 하지 않겠는가?

- ① 성령충만 받아야 분별력이 생긴다.
- ② 바른 판단력이 생긴다.
- ③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2) 이런 자 앞에는 환난이 온다? 결박이 기다린다? 이게 통과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3) 최고로 멋지게, 생명 건 헌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확인하게 된다. 그때 생명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여전도회 되기를 축원한다.